

Original Article / 원저

## 眼科 圖像을 통해 살펴본 五輪八廓 이론에 대한 연구

『醫方類聚』의 眼科 圖像을 중심으로

한봉재\* · 김동율 · 정지훈\*

\*경희덕소애한의원 · 고흥군보건소

### The Research on the theory of *ohryun-palgwak* through Ophthalmology Drawings Focusing on Ophthalmology Drawings in 『Euibangyoochui』

Bong-Jae Han · Dong-Ryul Kim · Ji-Hun Jung

Kyunghee Duksoae Korean Medicine Clinic · Goheung public health center

#### Abstract

**Objectives** : Research on ophthalmology drawings in *Euibangyoochui* reveals the medical historic flows of the theory of *ohryun-palgwak* that is representative theory of ophthalmology.

**Methods** : Ophthalmology drawings are divided into *ohryun-palgwak* drawings and eye disease drawings. Four picture of ophthalmology drawings in *Euibangyoochui* are shown in the books of *suwolnobyangung*, *seeuidekhyobang*, *suyeoksinbang*.

**Results** : *Ohryun* drawing which describes the relationship between eyes and five viscera mentioned in *lingshu*. This is based on the theory of five elements. *Palgwak* drawing shows the combination *palgwak* theory and the eight trigrams of *iching*.

**Conclusions** : In Korean Medicine theory of the eye, the diagnosis of eyes could be diagnosed eye disease and diseases of five viscera and six entrails. Each parts of the eye are reflected disorders in the five viscera and six entrails. Ophthalmology drawings in *Euibangyoochui* explains well these theories.

**Key words** : Euibangyoochui; Ophthalmology Drawings; *Ohryun* drawing; *Palgwak* drawing

## 1. 서 론

圖像은 선이나 색채를 써서 사물의 형상이나 이미 지를 평면 위에 나타낸 것을 말한다. 圖像은 글과 어울려서 해석을 온전하게 하고 그 자체로도 글로 표현하지 못한 생각을 압축적으로 담기도 한다. 한의학 이론은 대부분 문자로 표현되고 전수되어져 왔으나 의서에는 많은 圖像이 함께 실려 있으며 저자의 생각을 보충하고 또한 함축적으로 나타내기도 하였다.

그 동안의 한의학 연구 성과 중 圖像에 대한 부분이 상대적으로 미진하였기에 중요한 의과학적 가치를 지닌 한의학 圖像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한의학 의서에 실려 있는 圖像은 한의학 연구자뿐만 아니라 한의학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에게 흥미로운 한의학 안내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시야에 잡힌 도상 한 폭에 한의학 이론 한 가닥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한의학 의서에 실려 있는 도상에 관한 연구로는 한봉재의 ‘『東醫寶鑑』의 圖像에 관한 연구’ 등이 있었다. 이 논문에서는 『東醫寶鑑』에 실려 있는 圖像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발표하였다<sup>1)</sup>.

본 논문에서는 이상의 연구 성과와 연계성을 가지고 『醫方類聚』에 실려 있는 圖像을 기초로 하여 五輪八廓 이론에 대해 서술해 보고자 한다. 『醫方類聚』는 조선 초기까지 의학의 연구 성과를 집대성한 의서로 여기에도 많은 圖像이 실려 있다. 이번 글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眼科와 관련된 圖像이다. 『醫方類聚』에 실린 眼科관련 圖像은 총 4쪽이다. 『修月魯般經』의 眼圖 1쪽, 『世醫得效方』의 五輪

之道와 八廓之道 2쪽, 그리고 『壽域神方』의 五行所屬圖 1쪽 등이 그것이다. 한의학 안과이론의 특색은 눈의 생리, 병리가 장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며 이것은 五輪八廓 이론에 상세히 담겨져 있는데, 그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 五輪圖와 八廓圖이다. 이 圖像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의학 안과이론의 역사적 흐름과 五輪八廓 이론에 관한 고찰이 필요하다. 그리고 五輪八廓 이론은 의학 역사의 흐름에 따라 醫家마다 각기 다른 견해를 제시하였으니 이론의 변화에 따라 圖像 역시 약간의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여러 의서에 실린 안과 도상과 五輪八廓 이론에 대해 살펴본 후, 『醫方類聚』의 眼科圖像의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2. 본 론

### 1) 한의학 안과 도상의 개괄

의서에 담겨 있는 한의학 안과 도상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五輪八廓圖로서 여기에는 五輪과 八廓이 각각 그려진 도상과, 五輪과 八廓이 함께 그려진 도상이 있다. 五輪圖를 볼 수 있는 최초의 의서는 『修月魯般經』이다. 『修月魯般經』은 失傳되었으나 『醫方類聚』에 일부가 남아서 그 내용을 알 수 있다<sup>2)</sup>. 그리고 五輪八廓의 완전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世醫得效方』의 도상이다. 한국의 의서 중에서 안과도상을 담고 있는 의서는 『醫方類聚』, 『東醫寶鑑』, 『目科一覽』<sup>3)</sup>

교신저자 : 정지훈, 경희대학교한의원  
(Tel: 031-521-9603, E-mail: albino@khu.ac.kr)  
• 접수 2014/4/8 • 수정 2014/5/9 • 채택 2014/5/16

\* 『修月魯般經』 처럼 『醫方類聚』에는 失傳된 의서의 일부 내용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일본의 多紀元堅과 그의 문하생들은 『醫方類聚』 안에서 중국과 일본에서 이미 오래 전에 亡失된 40종 가량의 문헌을 찾아 잃어버린 책을 抄錄하였다. 이것이 『醫方類聚採輯本』이다. 여기에는 『龍樹菩薩眼論』, 『修月魯般經』, 『朱氏經驗方』, 『經驗秘方』, 『醫林方』 등이 있다.

+ 조선 후기의 안과전문 의서이다. 저자나 작성연대는 미상이며 『東醫寶鑑』 『眼門』의 내용을 이론과 처방편으로 양분하고 실제 임상활용에 적합한 형태로 간편하게 구성한 것이다.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의서 중 『目科一覽』은 조선 후기의 안과 전문 의서로 주로 『東醫寶鑑』의 「眼門」을 이론과 처방으로 나누어서 재구성한 책이다. 여기에 실린 五輪之圖와 八廓之圖는 Fig. 1, Fig. 2와 같다.

## 五輪之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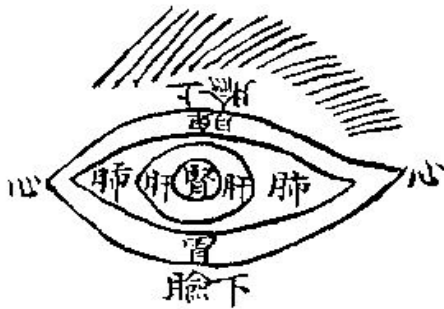


Fig. 1. Ohryun drawing in Mokgwailram

## 八廓之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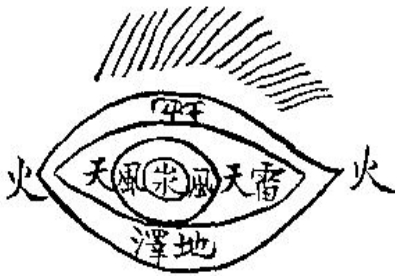


Fig. 2. Palgwak drawing in Mokgwailram

두 번째는 眼病圖로서 안과질환의 증상을 그린 그림을 말한다. 가장 자세하고 풍부한 眼病圖를 실고 있는 의서는 『銀海精微』\*<sup>4)</sup>이다. 이 책에는 五輪

지도와 八廓지도 이외에도 상권에는 64쪽, 하권에는 16쪽 등 총 80쪽의 眼病圖가 실려 있다. 努肉攀睛, 雞冠靨肉, 兩臉粘睛 등의 대부분의 안과 증상을 대상으로 묘사하고 각 질환의 원인과 증상, 治方을 제시하였다. Fig. 3과 Fig. 4는 『銀海精微』에 실린 眼病圖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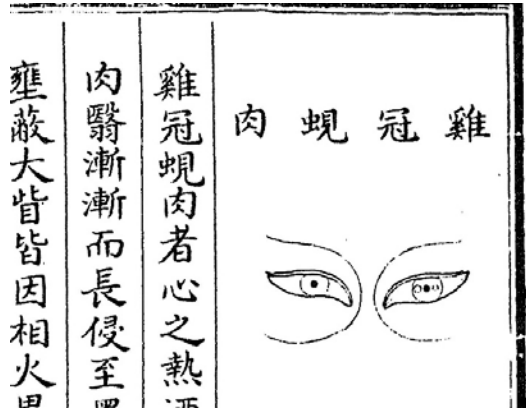


Fig. 3. Eye disease drawing in Yin Haijingwei : Jiguanxianro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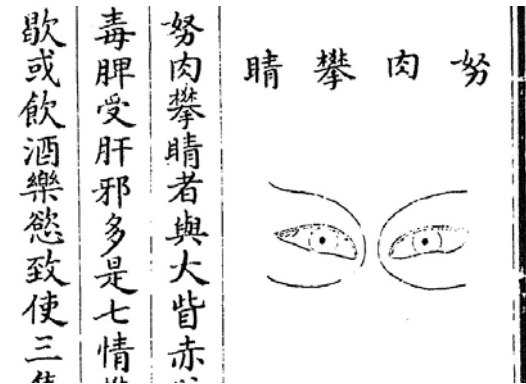


Fig. 4. Eye disease drawing in Yin Haijingwei : Nuroupanjing

\* 중국 송나라 이후에 손사막의 이름으로 편찬되었는데, 편찬 년도는 알 수 없다. 전 2권으로 道家의 '目爲銀海'라는 말에 연유하여 책명을 정했다. 五輪八廓과 각종 眼病의 증치를 논하였고, 여러 가지 眼病圖를 덧붙였다.

## 2) 五輪八廓 理論

五輪八廓 理論<sup>\*5)</sup>은 한의학 안과이론의 대표적인 것으로 안과 전문 의서에서는 거의 모두 첫머리에 이 이론을 제시하고 설명하였다.<sup>+</sup> 한의학의 안과 치료술은 중국의 경우 隋唐시기에 이미 처방은 물론, 疣贅, 努肉 등을 제거하는 수술과 撥治倒睫의 방법이 발달했고, 아울러 金針으로 內障을 치료하는 방법이 사용되기도 하였다<sup>6)</sup>. 그리고 『龍樹菩薩眼論』<sup>†7)</sup> 등의 안과전문서가 있어서 안과에 대한 연구가 깊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龍樹菩薩眼論』은 동양의학에서 가장 오래된 안과 전문서라 할 수 있고, 隋唐시대 불교를 통해 전래된 인도의의학의 영향을 받은 의서이다<sup>8)</sup>. 고대 인도의학에서 안과의학은 치료술에 있어서 많은 성과가 있어서 불교의 전파와 더불어 인접 국가에 전해졌다고 한다<sup>\*\*9)</sup>. 『醫方類聚』 「眼門」의 맨 첫머리에 나오는 의서도 바로 『龍樹菩薩眼論』이다.

중국의 경우 宋代에는 의학의 발전에 따라 9개의 분과로 나뉘어졌는데 그 중의 眼科는 단독으로 하나의 분과를 이루었으며 그 중에서 五輪八廓이론의 형성은 가장 중요한 성과였다. 의서의 내용을 토대로 살펴본다면 五輪이론과 八廓이론은 처음부터 함께 논의된 이론이 아니고, 각기 달리 발전하였다.

### (1) 五輪 이론

五輪 이론은 눈의 구조에 오행 이론에 따른 명칭을 부여하고 이것이 장부, 경락과 연계되어 생리, 병리적으로 연관이 있음을 설명하는 안과이론이다. 그 기원은 『黃帝內經』으로 여기에는 눈과 관련된 생리와 병리가 잘 서술되어져 있는데, 특히 『靈樞』의 「大惑論」에서는 눈의 각 부위의 명칭을 부여하고 장부와 연관된 이론의 기원을 열었다.

오장육부의 정기는 다 위로 눈에 주행하여 精을 형성하는데, 精의 窠는 안구에 해당하고 骨의 精은 동자에 해당하며, 筋의 정은 黑眼에 해당하고 혈의 정은 淚膜에 해당하며, 그 窠氣의 정은 白眼에 해당하고 肌肉의 정은 눈꺼풀에 해당하며, 筋-骨-血-氣의 네 가지 精을 둘러싸면서 경맥과 병행하는 것은 目系를 이루니, 위로는 뇌에 이어지고 뒤로는 項部의 중앙으로 나온다<sup>††10)</sup>.

위에서 보듯 눈의 각 부위를 명명하고 그 부위가 생리적으로 臟腑, 筋骨氣血과 연관되어 있음을 설명하였다. 그리하여 눈의 생리, 병리를 파악하는 이론은 여기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눈의 구성부분과 장상학설에 의한 오장 생리기능과 연관되는 부위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밝힌 것이다.

五輪의 명칭에 관해서는 五輪중 ‘水輪’이라는 명칭

\* 五輪八廓 이론은 한의학 안과이론의 독특한 이론으로 한의학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다. 이정태·최정화는 ‘五輪八廓에 관한 문헌적 고찰’을 통해 내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五輪八廓에 관한 역대의 문헌을 정리하고 분석하였다.

† 눈의 병을 진찰하는 眼科는 의학의 여러 분야 중에서 비교적 일찍부터 전문화가 이루어진 분야이다. 그래서 안과 전문 서적도 많은데 조선시대에는 『目科一覽』이라는 안과전문 의서가 있다. 안과전문 의서로는 『龍樹菩薩眼論』, 『葆光道人眼科龍目論』, 『眼科大成』(銀海指南), 『傅氏眼科審視瑤函』, 『銀海精微』, 『目科一覽』 등이 있다. 대부분의 안과 의서들에서 五輪八廓이론을 다루고 있다.

‡ 중국 隋, 唐나라 때의 사람인 용수보살(龍樹菩薩)을 탁명(托名)하여 편찬한 의서이다. 편찬자는 미상이며 『龍樹眼論』이라고도 하며, 『眼論』이라고 약칭하기도 한다. 全 1卷(全 3卷本도 있음)이며 눈병의 원인 및 각종 눈병의 치료법을 기술하고 있다. 특히 백내장을 침으로 벗겨 내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원서는 없어졌는데, 그 없어진 문안을 『醫方類聚』, 『醫心方』 등에서 볼 수 있다.

§ 이에 관한 연구는 김성수·강성용의 논문을 참고하기 바람.

\*\*인도의 『수스르타Susruta 본집』과 1세기경의 켈수스에 따르면, 고대 인도와 로마에서는 수정체 백내장의 ‘압력을 낮추어’ 치료했다. 1559년의 채색사본은 이 책의 저자인 린다우의 카스파르 스트로마이어가 백내장압 하강술과 탈장 수술의 권위자였음을 보여준다. 독일의 외과 의사 게오르케 바르티시(George Bartsch)가 1583년에 펴낸 책에도 백내장압하강술과 안구 제거술의 방법이 기록되어 있다.

†† 五藏六府之精氣, 皆上於目, 而為之精, 精之窠為眼, 骨之精瞳子, 筋之精為黑眼, 血之精為絡, 其窠氣之精為白眼, 肌肉之精為約, 裹攝筋骨血氣之精而與脈並為系, 上屬於腦, 後出於項中. (其窠氣之精為白眼의 ‘其窠는 잘 못 삽입된 구절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 『龍樹菩薩眼論』에 처음 등장한다. 가장 오래된 안과전문서의서인 『龍樹菩薩眼論』에서는 五輪이론이나 八廓이론에 대한 전모는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水輪’이라는 명칭만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안병의 원인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함부로 치료하는 것을 경계하는 글에서 발견된다<sup>\*11)</sup>. 五輪에 대한 완성된 내용은 北宋 초기에 발간된 『太平聖惠方』이다. 이 책에서 ‘五輪’이라는 명칭이 최초로 수록되었으며 또한 구체적 내용이 언급되었다. 『太平聖惠方』의 『眼論』과 『眼內障論』에는 五輪의 명칭과 장부와의 관계 및 진단, 병리적 내용이 폭넓게 설명되어 있다.

그러므로 눈은 오장의 정기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한, 눈에는 五輪이 있으니 풍륜, 혈륜, 기륜, 수륜, 육륜으로 五輪은 오장에 응하며 기의 주인을 따르는 것이다<sup>+ 12)</sup>.

그리고 간-풍륜, 심-혈륜, 비-육륜, 폐-기륜, 신-수륜으로 명명하고 각 부위와 구체적 증상에 따른 진단 내용을 서술하였다. 五輪의 눈의 위치배속에 관해서는 『太平聖惠方』에서는 肉輪을 白睛으로 본 것과 氣輪을 “氣輪在肉輪之下, 隱而不見也”라 하였는데 이것은 현재의 일반적인 五輪의 위치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다<sup>+ 13)</sup>.

元의 危亦林이 편찬한 『世醫得效方』에 이르러서는 五輪과 눈의 위치배속이 오장분류에 따라 정리되었으며 후대 의서에서는 이것을 따르고 있다. 즉, 대부분 풍륜-간-黑眼, 혈륜-심-絡(大小眚), 육륜-비-胞

險, 기륜-폐-白睛, 수륜-신-瞳子 가 일치하고 있다. 또한 金元시기 의서인 『銀海精微』에서는 五輪八廓 이론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하고 안과 질병에 관련된 여러 圖像을 첨부하여 증상을 설명하였다<sup>14)</sup>. 그리고 중국 청대의 『眼科捷徑』에서는 五輪을 오장경락과의 배속관계를 논하였는데, 이것은 경락학설을 더욱 중시하여 연결시킨 것이다<sup>15)</sup>.

그렇다면 五輪이라는 명칭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의종금감』에 잘 나타나 있다.

五輪은 육륜, 혈륜, 기륜, 풍륜, 수륜이다. 륜이라고 하는 것은 눈동자의 움직임이 (수레의) 바퀴와 비슷하다는 뜻이다<sup>§16)</sup>.

즉, 五輪의五是 오장의 정화가 발하는 곳을 말한 것이고, 輪이란 그 象이 車輪의 회전하는 모습과 같아서 운동하고 있다는 뜻이다<sup>17)</sup>.

## (2) 八廓 이론

八廓 이론은 눈을 여덟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안과 진단에 활용한 것으로 八廓의 명칭은 南宋의 『三因極一病證方論』<sup>\*\*18)</sup>에 최초로 수록되었고 그 구체적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南宋末期의 『葆光道人眼科龍目集』<sup>++19)</sup>에서 그 명칭과 내용이 상세하게 논술되었다<sup>20)</sup>.

八廓에 관한 설명은 의서마다 다른데, 크게 세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자연의 天, 山, 水, 雷, 風, 火, 地, 澤의 八象과 연계시켜 명명한 것이

\* 乍聚凝膏, 以針銚決皆頭息肉, 傳藥蝕銷. 膜入水輪, 苦逼牽掣, 如此覓效, 增劇更深, 豈非不識病源, 乏披經論, 意切所療, 用手無憑, 處置乖違, 便成返害, 損人眼目.

+ 故目者, 五藏之精氣所成也. 又曰, 眼有五輪, 風輪, 血輪, 氣輪, 水輪, 肉輪, 五輪應於五藏, 隨氣之王. 太平聖惠方作主也.

+ 肝生風, 眼有風輪也, 雖有其名, 形狀難曉, 與水輪相輔也. 心者, 在藏爲心, 其色赤, 其味苦, 屬南方丙丁火也, 王於夏, 心生血, 眼有血輪也, 血輪與肉輪相連, 赤黑色是也, 此輪忌針. 脾者, 在藏爲脾, 其色黃, 其味甘, 屬中央戊己土也, 王於四季十八日, 脾生肉, 眼有肉輪也, 肉輪在外, 鬱鬱黃白色, 今俗爲白睛也. 肺者, 在藏爲肺, 其色白, 其味辛, 屬西方庚辛金也, 王於秋, 肺生氣, 眼有氣輪也, 氣輪在肉輪之下, 隱而不見也. 腎者, 在藏爲腎, 其色黑, 其味鹹, 屬北方壬癸水也, 王於冬, 眼有水輪也, 水輪在四輪之內, 爲四輪之母, 能射光明, 能視萬物, 今呼爲瞳人也.

§ 五輪者, 肉輪血輪氣輪風輪水輪也. 謂之輪者, 目睛運動如輪之義意也.

\*\* 중국 송나라 陳言이 1174년에 편찬한 의서로 『三因方』이라고도 하며 전 18권임.

+ + 안과저작으로 一卷이며 原題는 葆光道人 편찬으로 되어있는 의서이다. 내용은 안과총론 이외에 안과의 상견병증 72종을 문답형식으로 편집하여 기술하였다. 단, 내용은 『龍目論』중의 72종과는 다르다.

다. 이러한 견해는 『世醫得效方』의 眼科總論에서 명명한 것이다. 또한 天廓-傳道-肺大腸, 地廓-水谷-脾胃 등과 같이 八廓을 각 장부와 연결하고 각 장부의 기능을 설명한 것이다.

둘째는 주역의 팔괘 명칭에 따라 명명한 것으로 元末의 『銀海精微』에서 팔괘의 명칭에 따라 눈의 부위를 명명하였다.

셋째는 장부의 생리기능에 따라 명명한 것이 그것이다. 『葆光道人眼科龍目集』에서 장부의 생리기능과 연계하여 명명하였는데 이것은 『仁齋直指方論』\*<sup>21)</sup>에서도 關泉廓, 養化廓 등의 八廓에 관한 명칭, 또한 소장과 삼초 등의 장부를 분별하여 연계시켰다. 明代에 편찬된 안과전문 의서인 『傅氏眼科審視瑤函』<sup>†</sup>에서는 장부의 기능에 따라 八廓의 명칭을 정하였다. 즉, 天廓-傳送廓, 地廓-水穀廓, 火廓-胞陽廓, 水廓-津液廓, 風廓-養化廓, 雷廓-清淨廓, 山廓-會陰廓, 澤廓-關泉廓으로 배당되는 장부의 생리적 기능에 따라 八廓의 명칭을 달리하였다.

그리고 八廓이라는 명칭의 의미는 『證治準繩』에서 최초로 설명하였다. 그 의미는 廓은 城郭으로 기혈 왕래의 경로를 방어하는 8개의 중요한 관문으로 보았다.

八廓은 팔괘에 상응하고 경락(맥락)이 뇌를 경유하며 장부를 관통하여 혈기가 왕래하다가 눈에 이른다. 곱은 비유하자면 성곽과 같은 것이니 각기 문로가 있고 왕래함에 성곽이 지키고 방어한다는 의미이다<sup>‡</sup> <sup>23)</sup>.

여기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은 八廓의 오장배속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안과와 관련된 의서에서 醫

家마다 의견이 분분하다. 이 논의의 관점은 크게 2가지이다. 첫째는 八廓을 오장과 육부에 동시에 배속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거의 대다수의 의서에 보이며 각 장부배속이 일관되어 있지 않다. 둘째는 八廓을 六腑에만 배속하는 것이다. 이것은 『醫宗金鑑』에서 처음 배속한 것으로 오장과 육부 모두 배속한 것과 관점을 달리한 것이다.

또 하나 살펴볼 점은 八廓이 눈의 어느 부위에 해당하는가 하는 眼位配屬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입상에 있어서 변증시치를 할 때 중요하므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최초로 八廓의 眼位를 설명한 것은 元代 危亦林的 『世醫得效方』이다. 여기에서는 八廓之圖를 그리고 각각의 위치를 표시하였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醫方類聚』의 안과도상을 살펴볼 때 알아보고자 한다. 五輪의 부위가 八廓에 대한 내용이 실린 20여종의 의서에서는 대부분 八廓의 위치가 같으나 『醫學入門』에서는 위치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특이한 점은 『證治準繩』<sup>§</sup><sup>24)</sup>에서 설명한 八廓의 안위배속이다. 여기에서는 八廓을 눈의 정면을 중심으로 팔괘의 방위배속에 따라 여덟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장부와 연계시켜 놓았다.

乾은 西北에居하여 그絡은 대장의 부에 통하고 장은 폐에 속한다. 폐와 대장은 음양이 되어 위로는 맑고 청순한 것을 운반하고 아래로는 糟粕을 보내는 까닭에 傳道廓이라고 한다\*\*<sup>25)</sup>.

그리고 坎-正北方-膀胱-腎-津液廓 처럼 八廓을 모두 팔괘와 방위, 장부명칭, 장부생리기능과 연결하여 확정지었다. 따라서 八廓을 주역의 이론에 따라 가장 충실하게 반영한 것이 『證治準繩』이라고 할 수

\* 중국 송나라 양사영(楊士瀛)이 1264년에 편찬한 의서로 전 26권이다. 내과 잡병의 증치(證治)를 증점적으로 소개한 임상 종합 의서이다. 각자는 증에 따라 처방을 설명함에 있어 여러 학자들의 경험방을 적절히 이용하고, 집안 대대로 전해오던 치료 경험을 참작하여 서로 다른 병증을 구별하여 증상에 따라 처방을 구별함으로써 보기 편하게 하였다.

† 明代 1644년에 傅仁字가 지은 안과 전문 의서인 『傅氏眼科審視瑤函』을 말한다. 6권으로 이루어진 안과 전문 의서로서 『眼科大全』, 『審視瑤函』, 『審視瑤函眼科大全』 등으로도 불린다.

‡ 八廓應乎八卦, 脈絡經緯於腦, 貫通臟腑, 達血氣往來以滋于目, 廓猶城郭然, 各有門路往來, 而匡廓衛禦之意也.

§ 王肯堂이 편낸 의학전서로 明代의 의학을 대표하는 걸작이다. 雜病, 傷寒, 癆醫, 幼科, 女科 등 6부류로 크게 나누어 『六科准繩』 혹은 『六科證治準繩』으로 알려져 있다. 1597년부터 1608년까지 11년에 걸쳐 집필되었으며 전 44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 乾居西北絡通大腸之府藏屬肺, 肺與大腸相爲陰陽上運清純下輸糟粕爲傳送之官, 故曰傳道廓.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八廓 이론은 임상응용에 있어서 어떤 가치가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醫家마다 논란이 있어 왔다. 八廓 이론이 안과 이론에 있어서 대표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임상에 있어서는 有用과 無用의 상반된 견해가 있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醫學入門』에서 李梴은 八廓에 대해서 ‘不必深泥’라 하여 八廓 이론에 얼마일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眼의) 表證은 대개 삼양부분에 속하고 裏證은 대개 삼음부분에 속한다. 중요한 점은 간이 위주가 되며 표리허실은 五行生剋의 이치에 지나지 않는다. 八廓은 깊이 구애될 필요가 없다\*26).

곧, 八廓 이론을 소개하고 이에 대해 자세히 서술 하였으나 실제 임상에 있어서는 깊이 구애될 필요가 없음을 밝힌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銀海精微』에서도 八廓은 ‘이름은 있으나 위치는 없다’는 有名無位를 주장하고 실제로 치료와는 무관하다고 하였다. 특히 『景岳全書』에서 張介賓은 五輪과 八廓학설 모두 근거를 둘 바가 없으며 임상에 있어서도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하여 비판하였다27).

그러나 明代 傅仁宇는 『審視瑤函』에서 ‘勿以八廓爲無用’이라는 제목을 따로 두어 八廓의 有用性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여 다음과 같이 논술하였다.

八廓의 경락은 곧 병을 검사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보통 廓의 병을 진단하는 것은 五輪과 다르다. 五輪은 (경락의 기운이) 통하는 부위의 형색을 증거로 삼으나 八廓은 오로지 五輪상의 혈맥과 실핏줄을 증거로 삼는다. 혹은 거칠거나 가늘거나 이어져 있거나 끊어지거나 일정한 형태없이 어지럽거나 직선이거나 붉거나 자주색인지 또, 어느 부위에서 시작

되었고, 어느 부위를 침범하였는지가 어느 장부에서 병이 났는지를 변별하고 병이 심한지 깊은지 가벼운지 무거운지, 혈기의 허실과 사기와 정기의 衰旺의 차이로써 自病과 傳病의 경락의 生剋順逆에 따라 치료할 따름이다. 사람들이 八廓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마치 三焦에 대해 이름만 있고 실체는 없어서 무용하다고 여기는 것처럼 오류가 심한 것이다. …… 지금 八廓은 위치도 있고 형태도 있는 것이니 따라서 삼초와 비교하자면 八廓의 혈맥과 실핏줄은 삼초의 그것에 비해 더욱 증거가 있는 것이다. 삼초가 비록 증거는 있어도 몸 안에 있어 보이지 않되 격상 격하의 구분이 있으며 八廓은 곧 밖으로 드러남이 명백하니 병이 생기면 실핏줄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니 어찌 무용하다고 하겠는가+28)!

위와 같이 八廓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八廓의 무용성을 주장하는 것을 비판하고 임상에서 안병을 진단하는 데 꼭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傅仁宇가 눈의 血脈絲絡의 형색, 부위, 延伸의 상황 등을 관찰함으로써 八廓을 진단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五輪八廓 이론은 현대에 이르러 중국의 彭靜山氏가 五輪八廓학설을 토대로 ‘眼鍼療法’을 창안하여 임상에서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29). 아울러 현대의 홍채학은 눈의 질병을 포함해서 인체 전반의 이상을 눈의 진단을 통해 파악하는 이론이다+30).

### 3) 『醫方類聚』의 眼科 圖像과 의의

『醫方類聚』의 眼科圖像은 「眼門」에 수록되어 있

\* 表證多屬三陽部分, 裏證多屬三陰部分, 要知以肝爲主, 表裏虛實, 不過五行生剋之理. 八廓不必深泥.

+ 夫八廓之經絡, 乃險病之要領, 叢斯道者, 豈可忽哉. 蓋驗廓之病與輪不同, 輪以通部形色爲證而廓惟以輪上血脈絲絡爲憑, 或粗細連斷, 惑亂直赤紫, 起於何位, 侵犯何部以辨何臟何腑之受病, 淺深輕重, 血氣虛實, 衰旺邪正之不同, 察其自病傳病經絡之生剋順逆而調治之耳. 人之謂此八廓如三焦之有名無實以爲無用者, 此謬之甚者也. …… 今八廓有位有形, 故如三焦之比八廓絲絡比之三焦更爲有據, 三焦雖然有據, 三焦在內而不見, 尚有膈上膈下之分八廓則明見於外, 病發則有絲絡之可驗者, 安得爲謂無用哉.

+ 유림의 전통의학의 한 이론으로 실제 임상에서 응용되고 있는 홍채학(iridology)은 인체를 보는 기본 관점에 있어서 五輪八廓 이론과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된다. 홍채는 五輪八廓 이론에 따르면 풍문과 수륜 혹은 산곽과 수곽에 해당하지만, 인체를 보는 기본 틀은 소위 전식관의 범주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박성일의 책을 참고하기 바람.

으며 「眼門」은 총 7卷으로 卷64부터 卷70권에 이른다. 여기에는 眼科의 기본 이론에서부터 안과 질환의 원인, 증상, 처방, 食治, 금기까지 모두 망라되어 있다. 그리고 『醫方類聚』의 「眼門」에 인용된 의서는 총 27권이며 4쪽의 圖像을 함께 수록하였다.

『醫方類聚』 「眼門」에 나타난 특징 중의 하나는 기존의 한의학 이론과 더불어 인도 안과의학의 영향을 받은 흔적이 남아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앞서 언급했던 『龍樹菩薩眼論』이라는 의서를 통해 알 수 있다. 『龍樹菩薩眼論』은 원본이 남아 있지 않고 오직 『醫方類聚』에 인용된 문장을 통해서만 그 내용을 알 수 있다<sup>1)</sup>. 『용수보살안론』을 필두로 眼에 대한 개괄적인 이론과 안질환의 증상, 치료법과 약물 등을 설명하였다. 인용된 의서로는 『巢氏病源』, 『千金方』, 『修月魯般經』, 『儒門事親』, 『東垣試效方』, 『得效方』 등 총 27권의 의서의 내용이 수록되었다. 4쪽의 眼科 圖像은 『修月魯般經』, 『世醫得效方』 그리고 『壽域神方』에 수록되었다.

### (1) 『修月魯般經』의 眼科圖像

『修月魯般經』은 失傳된 의서로 일부 내용이 『醫方類聚』 안에 남아 있다. 제목으로 보아 불교가 전래되면서 함께 들어 온 인도안과의학의 영향을 받은 의서일 것으로 사료되며 정확한 간행연대는 알 수 없으나 『醫方類聚』에 인용된 순서로 추측하건대 13세기 후반의 의서일 것으로 짐작된다<sup>\*31)</sup>. 안과 역사에 있어서 『修月魯般經』의 의의는 五輪八廓이론의 완전한 형식이 잘 나타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수록된 圖像은 『修月魯般經』의 첫머리에 나타난다. 원서에 그림의 제목은 없으나 眼圖로 명

명하고자 한다. Fig.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眼圖는 눈의 모습을 다소 투박하게 그린 것으로 눈의 부위에 각각 해당하는 오행을 표시하였다. 그리고 그림에 오행에 따라 눈 부위의 명칭과 각각의 오장 배속 및 五行歸類 그리고 각 부위가 筋精, 血精, 肉精, 氣精, 骨精에 속하는 것을 설명하였다<sup>+ 32)</sup>. 이것은 『靈樞』 「大惑論」의 문장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Fig. 5. Eye drawing of Xiuyuelubanjing in Eubangyoochui

이후 ‘五輪應五行’, ‘八廓’, ‘五輪’, ‘五臟’, ‘五行相生’, ‘肝病十般’ 등의 순서로 안론의 총론부분이 서술되어 있다. 五輪應五行은 五輪에 해당하는 눈의 위치를 설명하고 이를 오행과 결부시켰다<sup>+ 32)</sup>.

위의 내용을 토대로 보면 이 의서의 眼圖는 바로 五輪圖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五輪에 대해서는 肝主風故風輪 心主血故血輪 脾主肉故肉輪 肺主氣故氣輪 腎主水故水輪 外應於眼內主五臟과 같이 설명하였다<sup>32)</sup>.

그리고 八廓을 뒤이어 설명하였는데, 여기에서는 八廓을 경락과 결부시켜 서술을 하고 있다<sup>\*\*32)</sup>.

淸淨之廓, 會陰之廓 등의 명칭은 담경, 신경, 방광경, 위경, 대장경, 소장경과 폐경, 명문경의 생리 기능을 그대로 반영한 명칭이다. 그리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경락과 연결된 臟腑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

\* 『醫方類聚』의 의서인용순서는 대부분 의서의 간행연대와 일치하고 있으나, 간혹 차이가 나는 곳도 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최환수의 ‘의방유취 인용서에 관한 연구’를 참조.

+ 火小皆赤主心, 血精, 絡果屬心火, 土兩胞黃主脾, 肉精, 約束屬脾土, 金四圍白主肺, 氣精, 白圍屬肺金, 木瞳子外青主肝, 筋精, 黑睛爲肝木, 水中央黑主腎, 骨精, 瞳子爲腎水. 木瞳子外青主肝筋木, 金兩圍白主肺氣金, 土兩胞黃主脾肉土, 火小皆赤主心血火.

+ 金應氣輪, 四圍白輪是也. 木應風輪, 黑輪之內是也. 水應水輪, 瞳人之內是也. 火應血輪, 大小皆頭是也. 土應肉輪, 上下兩臉是也.

§ 肝主風故風輪, 心主血故血輪, 脾主肉故肉輪, 肺主氣故氣輪, 腎主水故水輪, 外應於眼內主五臟.

\*\* 膽之經, 淸淨之廓, 腎之經, 會陰之廓, 膀胱經, 津液之廓, 胃之經, 水穀之廓, 大腸經, 傳送之廓, 小腸經, 闕泉之廓, 肺之經, 養化之廓, 命門經, 抱陽之廓.



다. 따라서 八廓은 눈의 어떤 부위에 해당하는 명칭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은 장부의 기능이 경락으로 연결되어 그 조화가 눈에 드러남을 八廓이라는 명칭으로 나타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므로 『修月魯般經』의 八廓이론을 반영하는 도상은 그릴 수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修月魯般經』에서 인식한 五輪은 눈의 오행 배속으로 오장의 기능이 눈에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며, 八廓은 장부와 연결된 경락이 눈에 이르러 발휘되는 생리적 기능을 의미하는 것이다. 五輪에 대한 완성된 논술은 이미 『太平聖惠方』에 잘 나타나 있다. 『修月魯般經』역시 이러한 내용을 받아들인 것이다.

(2) 『世醫得效方』의 五輪八廓圖

『世醫得效方』\*<sup>22)</sup>의 眼科總論과 다양한 처방이 『醫方類聚』 「眼門」에 수록되어 있다. 五輪八廓이론에 있어서 『世醫得效方』은 『修月魯般經』보다 한층 진일보한 내용을 서술하였다. 이 내용은 '眼科總論' 부분에 잘 드러나 있다. 먼저 눈이 오장의 정화가 모인 곳으로 五輪은 오행에 응하고, 八廓은 팔괘를 형상화한 것임을 천명하였다.

사람에게 두 눈이 있는 것은 마치 하늘에 해와 달이 있는 것과 같으니 일신의 보배이며 오장의 정화가 모인 곳이다. 五輪이라는 것은 오행에 응하며 八廓은 팔괘를 본뜬 것이다<sup>33)</sup>.

또 五輪之圖와 八廓之圖를 그리고 五輪八廓 이론을 설명하였으며 眼病의 원인과 증상을 서술하였다. 이 두 쪽의 圖像은 이후 五輪八廓이론의 모범이 된 것으로 五輪과 八廓을 설명한 의서에서는 이를 기본으로 한 도상이 수록되어 있다. 五輪之圖와 八廓之

圖는 각각 Fig. 6과 Fig. 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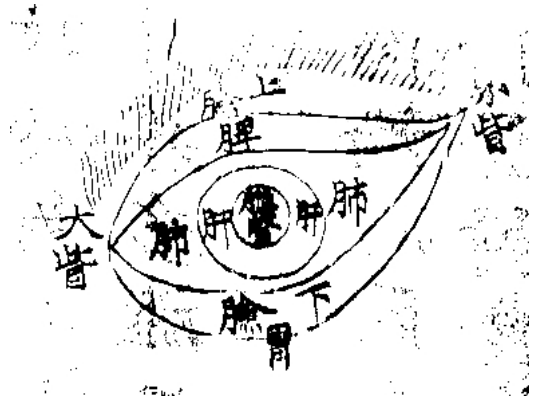


Fig. 6. Ohryun drawing of Dexiaofang in Euibangyoochu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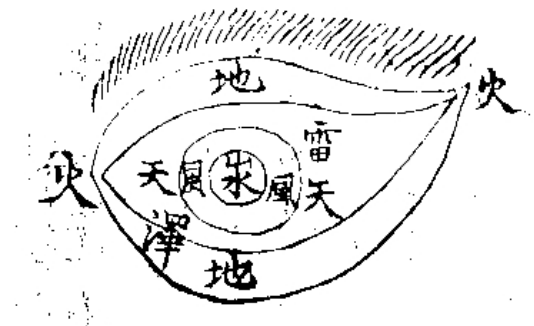


Fig. 7. Palgwak drawing of Dexiaofang in Euibangyoochui

여기에 나타난 五輪之圖를 보면 『靈樞』의 眼科 오장과의 관계를 서술한 내용을 그림으로 해석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오행에 따른 오장배속 및 눈의 위치와 五輪의 부위를 정리하였다. 이것은 오행학설에 근거하고 안과질환의 진료경험을 총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흰자위는 폐에 속하는데, 기의 정으로서 기륜이 된다. 검은자위는 간에 속하는데, 근의 정기로서 풍

\* 중국 원나라 위역림(危亦林)의 편찬으로 1345년에 간행된 方書이다. 전 19권으로 이 책은 편자가 그의 5세(世)의 가전의방(家傳醫方)을 바탕으로 하여 편성한 것이다. 내용의 차례는 원나라의 의학 십삼과(十三科)에 의거하였다. 내, 외, 부(婦), 아(兒), 오관, 상과(傷科) 등 각 유(類) 질병의 맥병 증치를 분별 설명하였고, 질병 분류를 비교적 세밀히 하였다. 채택한 역대 및 가전(家傳)의 처방(諸方)은 수량이 많을 뿐더러, 대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참고 가치가 있다.

†人有雙眸如天之有兩曜，乃一身之至寶，聚五臟之精華，其五輪者應五行，八廓者象八卦。

륜이 된다. 위아래 눈꺼풀은 비에 속하는데 육의 정으로서 육륜이 된다. 내지와 외지는 심에 속하는데, 혈의 정으로서 혈륜이 된다. 눈동지는 신에 속하는데 뼈의 정으로서 수륜이 된다\*<sup>34)</sup>.

그리고 風輪病, 血輪病, 氣輪病, 肉輪病, 水輪病의 원인과 증상과 치법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五輪病이라는 구체적인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五輪이론에 있어서 원인, 증상, 치법을 명확하게 정리한 것에 의의가 있다<sup>34)</sup>. 이러한 내용은 『東醫寶鑑』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五輪이론이 수용되었다.

그렇다면 八廓之圖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앞에서 살펴 본 『修月魯般經』의 八廓은 눈의 구체적인 부위에 해당하는 명칭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도상도 없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世醫得效方』의 八廓之圖를 보면 눈의 구체적인 부위에 八卦의 명칭을 부여하고 八廓이 눈의 부위에 해당하는 것임을 밝혀 놓았다. 이것은 八廓이론이 눈의 진단에 사용되는 기초를 열어놓은 것이라 볼 수 있다.

Fig. 7는 八廓之圖인데, 天·地·火·水·風·雷·山·澤의 팔괘 명칭을 눈의 각 부위에 명명하고 八廓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천곽은 전도의 기능을 하니 폐·대장에 속하고, 지곽은 수곡과 연관이 있으니 비위에 속하며 화곽은 포양의 기능을 하니 심·명문에 속하고, 수곽은 회음의 기능을 하니 신에 속하며 풍곽은 양화의 기능을 주관하니 간에 속하고, 뇌곽은 관천의 역할을 하니 소장·담에 속하며 산곽은 청정하니 담에 속하며 택곽은 진액의 기능과 연관되니 방광에 속한다<sup>35)</sup>.

또, 八廓病을 제시하고 원인에 따른 구체적인 증상을 서술하였다. 이로써 八廓은 안과진단의 임상이론으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즉, 기존의 八廓이론과 『周易』의 八卦가 서로 결합하여 『世醫得效方』의 八廓이론이 형성된 것이다. 『世醫得效方』의 八廓이론이 반영하는 것은 이러한 학설의 초기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sup>36)</sup>.

### (3) 『壽域神方』의 五行所屬圖

『壽域神方』은 明代 朱洪武 皇帝의 16번째 아들인 朱權<sup>37)</sup>이 1406년에 편찬한 의서이다. 『醫方類聚』 「眼門」에 실린 『壽域神方』의 안과 내용은 五輪이론과 眼門食治 부분이다. 여기에 실린 圖像은 五行所屬圖로서 Fig.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눈의 각 부위를 5개로 나누고 五輪의 명칭을 부여하였으니 바로 五輪圖에 해당한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운데 눈동지는 신수에 해당하며 수륜이고, 크고 까만 눈동지는 간목에 해당하니 풍륜이며 위아래 눈꺼풀은 비토에 해당하니 육륜이고 양쪽의 크고 흰 눈동지는 폐금에 해당하며 기륜이고 크고 작은 두 눈가는 심화에 속하니 혈륜이다<sup>38)</sup>.

그리고 수륜, 풍륜, 육륜, 기륜, 혈륜의 순서로 장부와의 관계와 해당하는 증상, 치료약제와 치법을 설명하였다. 이를테면 수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水輪은 안으로는 신에 속하고 밖으로는 눈동자에 해당하니 이름을 水輪이라고 한다. 본경이 허손되어 증상이 눈에 나타나니 동자에 나타나면 시야가 어둡

\* 白屬肺, 氣之精氣輪, 黑屬肝, 筋之精風輪, 上下臉屬脾胃, 肉之精肉輪, 大小眥屬心, 血之精血輪, 瞳仁屬腎, 骨之精水輪.  
 † 풍륜명을 예로 들자면 다음과 같다. 風輪病, 因喜怒不常, 作勞用心, 晝凝視遠物, 夜勤讀細書, 眼力既勞, 風輪內損, 其候皆頭尤澁, 睛內偏疼, 視物不明, 胞眩緊急, 宜去風藥.  
 ‡ 天廓傳道肺大腸, 地廓水谷脾胃, 火廓抱陽心命門, 水廓會陰腎, 風廓養化肝, 雷廓關泉小腸, 山廓清淨膽, 澤廓津液膀胱.  
 § 明末의 傅仁宇는 八廓이론과 임상경험을 총결하여 안과 이론의 임상응용방면에서 더욱 진일보한 발전을 이뤘다. 이러한 내용은 傅仁宇의 『審視瑤函』이라는 안과전문의서에 잘 드러나 있다.  
 \*\* 『隴仙活人心法』의 저자로 잘 알려져 있는 朱權은 詩文經史醫業에 정통하였고 만년에 道學을 배워 자신의 號를 隴仙이라고 했다.  
 †† 中央瞳人, 腎水水輪, 大黑烏睛, 肝木風輪, 上下兩胞臉, 脾土肉輪, 兩大白睛, 肺金氣輪, 大小二眥頭, 心火血輪.

고 깜깜해지며 오래되면 시력을 잃는다. 공복에 溫藥을 써서 보하는 것이 마땅하며 식사 후에는 涼藥으로 맑게 해야 하니 靑鹽·山藥과 같은 약재를 쓰는 것이 오묘하다. 밝은 것을 싫어하면서 청색이 시야에 나타나는 것은 腎家가 허약해진 것이다\*<sup>3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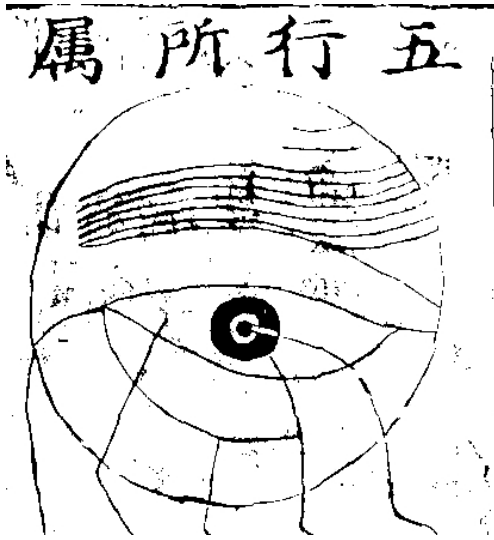


Fig. 8. Wuxingsuoshutu of Shouyushentfang in Euibangyoochui

『醫方類聚』 「眼門」은 『壽域神方』의 五輪에 관한 설명을 끝으로 안과의 총론부분을 마무리하며 65권부터는 治方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 (4) 『醫方類聚』 眼科 圖像의 의의

『醫方類聚』 「眼門」은 당시까지의 우리 의서와 중국의 의서를 정리하고 분류하여 편찬하는 과정에서 조선 초기까지 안과이론의 성취를 총결한 것이다. 여기에 담긴 『醫方類聚』의 안과도상은 조선 초기까지의 안과이론의 정수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도상이라 여겨지며, 그 중심에 五輪八廓 이론이 있다. 『醫方類聚』의 안과도상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점

은, 五輪八廓 이론이 처음부터 고정불변의 이론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五輪은 오행이론에 따라 八廓은 자연계의 八象, 八卦, 장부기능에 따라 각기 다른 출발선상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각 시대의 의가의 견해에 따라 八廓이론은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 有用과 無用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받으면서 전승되었다. 그리고 『醫方類聚』의 眼科圖像은 모두 4쪽으로 『修月魯般經』, 『世醫得效方』 『壽域神方』에 실린 것이며 모두 五輪八廓圖에 해당한다.

『醫方類聚』의 五輪之圖와 八廓之圖를 통해 五輪은 오행에 응하고, 八廓은 팔괘와 연관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世醫得效方』의 五輪八廓이론이 반영하는 것은 이러한 학설의 초기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한의학의 안과이론은 눈의 진단을 통해 눈병을 포함한 오장육부의 질병을 진단하였다. 눈의 각 부위는 오장육부의 이상이 반영되는 곳으로, 진맥과 面部의 望診을 통해 장부의 기능이상을 파악하는 것처럼 안과 진단 역시 그러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 『醫方類聚』는 조선 초기까지의 우리 의서와 중국 및 기타 의서를 들여와 편집원칙에 따라 분류·정리하고 수용하여 중국 의학을 흡수하고 새롭게 정리하여 자국 화하려고 한 의서로<sup>39)</sup> 이러한 편찬 의도는 안과방면에 있어서도 일정부분 성취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 3. 결 론

지금까지 한의학 의서에 실린 안과도상에 대해서 살펴보고 안과이론의 대표인 五輪八廓이론의 의학적 흐름에 대해서 간략하게 고찰해보았다. 그리고 『醫方類聚』의 眼科圖像 4쪽을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첫째, 한의학의 안과 도상은 크게 五輪八廓圖와 眼病圖로 나눌 수 있다.

\* 在內屬腎, 外應瞳人, 名爲水輪, 本經虛損, 疾見於眼, 其睛則昏暗, 久則失視, 空心宜溫藥補之, 食後用涼藥清之, 靑鹽, 山藥之類, 與之妙. 羞明見靑色者, 腎家虛.

둘째, 『醫方類聚』의 眼科圖像은 모두 4쪽으로 『修月魯般經』, 『世醫得效方』 『壽域神方』에 실린 것이다.

셋째, 『醫方類聚』의 眼科圖像은 모두 五輪八廓圖에 해당하며 『修月魯般經』의 五輪은 눈의 오행 배속으로 오장의 기능이 눈에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며, 八廓은 장부와 연결된 경락이 눈에 이르러 발휘되는 생리적 기능을 의미하는 것이다.

넷째, 『醫方類聚』의 五輪之圖와 八廓之圖를 통해 五輪은 오행에 응하고, 八廓은 팔괘와 연관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五輪之圖는 『靈樞』의 眼과 오장과의 관계를 서술한 經文을 그림으로 해석한 것이며 이것은 오행학설에 근거하고 안과질환의 진료경험을 총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八廓之圖는 기존의 八廓이론과 『周易』의 八卦가 서로 결합하여 형성된 것이며 『世醫得效方』의 八廓이론이 반영하는 것은 이러한 학설의 초기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醫方類聚』의 五行所屬圖는 五輪圖로서 기존의 五輪이론을 반영하였다.

한의학의 안과이론은 눈의 진단을 통해 눈병을 포함한 오장육부의 질병을 진단하였다. 눈의 각 부위는 오장육부의 이상이 반영되는 곳으로, 진맥과 面部望診을 통해 장부의 기능이상을 파악하는 것처럼 안과 진단 역시 그러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 『의방유취』는 조선 초기까지의 우리 의서와 중국 및 기타 의서를 들여와 편집원칙에 따라 분류·정리하고 수용하여 중국의학의 흡수하고 새롭게 정리하여 자국화하려고한 의서로 이러한 편찬 의도는 안과방면에 있어서도 일정부분 성취가 있었다.

### Reference

1. Han BJ. A Study on Drawings in Donguibogam. Seoul:Kyunghee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10.

2. Miki Sakae. Korean medical books. Osaka:Academic Book Publishing Society, 1973:47-8.
3. Encyclopedia of Oriental Medicine. Seoul:Kyunghee University Press, 1999;3:359.
4. Encyclopedia of Oriental Medicine. Seoul:Kyunghee University Press, 1999;8:59.
5. Lee JT, Choi JH. A Literature study on Ohryun-Palgwak. The Journal of Oriental Medical Surgery, Ophthalmology & Otolaryngology. 1999;12(1).
6. Mang WJ. History of Chinese Medicine. Seoul:Daesung Publishing Company, 2006:141.
7. Ahn SW. Review on Old Medical Books. Seoul:The Minjok Medicine News, 2003;149.
8. Kim SS, Kang SY. On Textual and Contextual Position of The Ophthalmological Treatise of Bodhisattva Nāgārjuna. Korean J Med Hist, 2013;22(1).
9. Jacalyn Duffin, Shin JS. History of Medicine. Seoul:Science Books, 2006:326.
10. Kim DH, Kim JH. Huangdi Neijing Lingshu. Seoul:Uiseongdang, 2002:1402-3.
11. Korean Academy of Sciences. Euibangyoochui. Seoul:Yeokang, 1994;5:511-9.
12. Korean Academy of Sciences. Euibangyoochui. Seoul:Yeokang, 1994;5:525.
13. Korean Academy of Sciences. Euibangyoochui. Seoul:Yeokang, 1994;5:526.
14. Han BJ. A Study on Drawings in Donguibogam. Seoul:Kyunghee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10:43.
15. Lee JT, Choi JH. A Literature study on Ohryun-Palgwak. The Journal of Oriental Medical Surgery, Ophthalmology &

- Otolaryngology, 1999;12(1):234.
16. Wu qian, Yi zong jin jian, Beijing:Renmin weisheng chubanshe, 1982:2019-23.
  17. Chai BY, Oriental Medical Ophthalmology & Otolaryngology, Seoul:Jipmundang, 1994:40.
  18. Encyclopedia of Oriental Medicine, Seoul: Kyunghee University Press, 1999;5:50.
  19. Encyclopedia of Oriental Medicine, Seoul: Kyunghee University Press, 1999;4:131.
  20. Lee JT, Choi JH, A Literature study on Ohryun-Palgwak, The Journal of Oriental Medical Surgery, Ophthalmology & Otolaryngology, 1999;12(1):235.
  21. Encyclopedia of Oriental Medicine, Seoul: Kyunghee University Press, 1999;8:292.
  22. URL:<http://jisik.kiom.re.kr/index.jsp>
  23. Wang ken tang, Liukezhengzhizhunsheng, Seoul:Daesung Publishing Company, 1992: 416-8.
  24. Ahn SW, Review on Old Medical Books, Seoul:The Minjok Medicine News, 2012;529.
  25. Wang ken tang, Liukezhengzhizhunsheng, Seoul:Daesung Publishing Company, 1992: 419-21.
  26. Li chan, Yixue rumen, Seoul:Daesung Publishing Company, 1990:30.
  27. Lee JT, Choi JH, A Literature study on Ohryun-Palgwak, The Journal of Oriental Medical Surgery, Ophthalmology & Otolaryngology, 1999;12(1):236.
  28. Gaoshuzhong, Zhongyi yan liao daquan, Jinan:Jinan chubanshe, 1994:13-7.
  29. Pengjingshan, Yan zhen liaofa bingan xuan, Shenyang: Yaoning zhongyi zazhi, 1997; 2:46-7.
  30. Park SI, Revolution of Korean Medicine in My Eyes, Seoul:Imagine of the Millennium, 2012.
  31. Choi HS, Shin SS, A study of reference books of 『Classified Collection of Medical Prescriptions』, Journal of KIOM, 1997.
  32. Korean Academy of Sciences, Euibangyoochui, Seoul:Yeokang, 1994;5:535-6.
  33. Korean Academy of Sciences, Euibangyoochui, Seoul:Yeokang, 1994;5:542.
  34. Korean Academy of Sciences, Euibangyoochui, Seoul:Yeokang, 1994;5:544.
  35. Korean Academy of Sciences, Euibangyoochui, Seoul:Yeokang, 1994;5:545.
  36. Huanglongxiang, Zhongguo zhenjiushi tujian, Beijing:Qingdao chubanshe, 2003:37.
  37. Encyclopedia of Oriental Medicine, Seoul: Kyunghee University Press, 1999;9:236.
  38. Korean Academy of Sciences, Euibangyoochui, Seoul:Yeokang, 1994;5:553-4.
  39. Choi HS, Shin SS, A study of reference books of 『Classified Collection of Medical Prescriptions』, Journal of KIOM, 1997;3(1): 17-40.